

# 제자의 두 마디 외침

성경 사도행전 5:17-32

##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은혜의 찬양 187장)

-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후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 2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 말씀 읽기 사도행전 5:17-32

-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내어 이르되
-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 성전 말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 성전 말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 이더라
- 그들을 풀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 본문 배경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의 시기를 받아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감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더욱 힘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공회 앞에 끌려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면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할 게 뻔한데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29b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끌고 와서 예수를 죽인 죄를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느냐고 심문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32a절)라고 외칩니다. 사도들은 세 가지 일에 있어 증인이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둘째, 부활한 예

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셋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도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 말씀 관찰

1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옥에 갇혔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핍박을 받아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요? (29절)

답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해설 사도들은 옥문을 나가자마자 생명의 말씀을 더욱 힘 있게 전했고, 공회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27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데, 왜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29b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계 2:10). 우리도 사도들처럼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2절)

답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끌고 와서 심문하며, 왜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28절). 이에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라고 답했습니다(32절). 사도들은 세 가지 일에 있어서 증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30a절), 둘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30b절), 셋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일입니다(31절). 제자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만 있는 사람이 아닌,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인 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 말씀 적용

1 제자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제자들은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인가요?

### 말씀 암송

## 7-4 그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 = 115 작곡 이종윤

Swing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오장사십이절말씀아멘—



### 가정에배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 행전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